

〈연구 보고〉

암묵연합검사에 반영된 시간관 척도의 범주적 표상*

이 재 호

최 윤 경[†]

이 흥 표

이 흥 석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대구사이버대학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Zimbardo와 Boyd(1999)는 심적 표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간관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개인의 시간적 차원이 심적 범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차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는 시간관 이론의 시간적 범주가 암묵연합검사에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시간관 이론에서 주장하듯이 시간적 차원이 심적 범주를 구성하는 요소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시간관 이론보다는 현재가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현재의 속명은 현재보다 미래에 작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암묵적 수준에서의 시간관 범주를 균형 표상 이론으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시간관, 암묵연합검사, 과거, 현재, 미래, 긍정, 부정, 쾌락, 속명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NRF- 2013S1A3A2043448).

† 교신저자 : 최윤경,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704-701)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 053-580-5405, E-mail : ykchoi@kmu.ac.kr

인간의 마음에서 가장 근본적인 과정은 무엇인가? 아마도 복잡한 세상 정보를 의미적으로 마음에 표상하는 과정일 것이다. Kant(1781/1965)는 마음 표상에는 본능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그 개념의 하나가 시간이라고 하였다. Lewin (1943)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Bandura(1997)는 과거 경험, 현재 평가, 그리고 미래 선택이 자신의 효능감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시간적 차원은 마음의 표상을 구축하는 정신적 기반으로 작용하여(Vygotsky, 1982), 복잡한 세상 정보를 의미적으로 통합하도록 기능한다고 보겠다(Conway, 2005; Zwaan & Radvansky, 1998).

시간에 대한 심적 표상 기능의 강조는 Zimbardo와 Boyd(1999; 2008)의 시간관 이론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인간 자체가 시간상에 존재하고 모든 인간의 생은 시간에 한정되며, 마음의 인지와 정서의 관계적 처리도 시간관으로 설명된다고 하였다. 정서는 진화적으로 즉각적인 과정이며, 인지는 계획이나 반성의 반응 같은 지연적인 과정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정서와 인지를 시간관에 접목하면 과거는 긍정과 부정 정서가 작용하며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반성과 미래의 계획 같은 인지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런 기능의 시간관은 개인의 웰빙이나 성격에 작용하는 주요 표상 체계임이 강조되었다(예; Kruger, Reischl, & Zimmerman, 2008).

그러면 시간관의 표상을 구성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Zimbardo와 Boyd(1999)는 56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개의 요인, 즉 과거-부정, 현재-쾌락, 과거-긍정, 미래, 현재-숙명이 산출되었다.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은 연구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5개의 요인 구조는 비교적 일관성 있는 결과였다. Zimbardo와 Boyd(1999)의 연구에

서 산출된 5개의 시간관을 요인부하량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부정: 과거 부정인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혐오적이며, 외상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평범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재구성하는 결과로 발생한다. 둘째, 현재 쾌락: 생에 대해서 쾌락주의, 위험 감수, 즐거움 정향 태도를 지니며 매우 충동적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미래 결과에 관심이 적다. 셋째, 과거 긍정: 과거에 대한 따뜻하고 감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넷째, 미래: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 미래의 보상과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이 우세하다. 다섯째, 현재 숙명: 현재 숙명적인 사람은 미래는 숙명적이며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다(Stolarski, Fieulaine, & van Beek, 2015).

Zimbardo, Sword, 및 Sword(2012)는 시간관이 개인의 마음에 작용하는 표상체계이지만 개인의 시간에 대한 태도가 대부분 학습에 기인하며 무의식적이고 주관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개개인의 특성이나 경험에 따라 시간관 프로파일이 편향되어 있지만 균형 잡힌 시간관(balanced time perspective)은 사건에 대한 질서, 응집성 그리고 의미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Zimbardo와 Boyd(1999)는 개인에 있어서 시간관의 최적 혹은 최상의 표상은 강한 과거-긍정, 약한 과거-부정, 약한 현재-쾌락, 약한 현재-숙명, 그리고 적절한 미래 지향성이라고 하였다. 시간관 표상은 시간적 차원에서 과거-현재-미래가 범주적으로 표상되고 하위 표상에서 인지와 정서적 요소가 하위 표상을 구성한다고 개념화할 수 있다(예; Holman & Zimbardo, 2009).

Bolotova와 Hachaturova(2013)은 시간적 범주가 각각의 인지, 정서, 행동의 표상과 통합되어 있을 가능성을 대처 행동(coping behavior)의 전략으로 설명하였다. 미래 정향은 적응적인

인지 전략을 선택하고, 현재-숙명 정향은 정서 전략을 사용하지만 인지 전략은 사용하지 않으며, 현재-쾌락 정향은 정서 전략과 행동 전략을 사용하며, 과거-부정 정향은 모든 부적응적 정서 전략을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과거-긍정 정향은 적응적인 정서와 행동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유사하게 Holman과 Zimbardo (2009)는 시간관이 의식적 경험에 대한 인지적 필터로 작용하지만 상황적 요인에 취약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의식의 수준에 따라 시간관의 표상이 역동적일 가능성이 엇보인다(예; Boniwell, 2009).

시간관 이론은 시간 표상을 범주로 가정하고 각 시간 표상은 그 범주를 구성하는 심적 속성들의 복합적인 구성체로 간주하였지만 연속적인 경험이 범주로 표상되는지(예; 과거-현재-미래) 그리고 이들 범주가 암묵적 수준에도 표상되는지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Fortunato & Furey, 2010; Holman, & Zimbardo, 2009). 즉 시간관 이론은 시간관이 5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였다(Zimbardo & Boyd, 1999).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요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나 과정적 해리에 대한 증거, 특히 암묵적 과정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예; Fortunato & Furey, 2010). 시간에 관한 암묵적 심적 표상은 사회적 범주 이론(Greenwald, et al., 2002)에도 비교할 수 있다. 시간관 이론의 과거-현재-미래라는 범주는 사회적 표상의 개인-집단-평가의 균형 일치적 표상이나(예; Greenwald, et al., 2002) 자신의 개인-관계-집단의 위계적 범주 차원과 비교될 수 있다(예; Sedikides & Brewer, 2001).

사회 인지에서 Greenwald 등(2002)은 암묵연합과제를 적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범주에 긍정과 부정의 속성을 조합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범주적 표상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자신-긍정과 타인-부정의 자존감 일치 조건이 타

인-긍정과 자신-부정의 자존감 불일치 조건에 비해서 범주의 판단시간이 빠름을 확인하였다. Nosek(2007)은 과거-미래의 태도적 차이를 암묵연합검사를 사용하여 관찰하였고 그 결과, 미래가 과거보다 검사 점수가 높음을 관찰하였다. 즉 과거-긍정/미래-부정보다는 미래-긍정/과거-부정의 반응이 빨랐으며, 외현적 과제와의 상관도 .26으로 관찰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Zimbardo와 Boyd (1999)의 시간관 이론에 따라 시간 표상이 과거-현재-미래로 범주화되고 각 시간 범주는 하위 속성에 따라 다시 분류된다고 가정하고 시간 범주와 속성에 대한 암묵적 연합 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시간 범주는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각각 비교하고 선행 이론에 기초하여 범주의 속성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과거-현재의 범주는 긍정과 부정의 속성을 적용하여 두 범주의 해리를 살펴볼 수 있고(Nosek, 2007), 미래 지향은 미래의 결과에 관한 정신적 표상, 미래의 목표와 보상을 위한 노력, 관심, 책임을 포함하지만(Cretu & Negovan-Zbăganu, 2013) 과거나 현재처럼 두 가지 속성으로 구분되지 않았고 후에 초월이 추가되었다. 현재-미래 범주는 현재의 두 속성인 쾌락과 숙명을 기준으로 대비되는 개념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Bolotova & Hachaturova, 2013; Zimbardo & Boyd, 1999). 현재 쾌락은 쾌락주의적이고 위험 감수의 속성을 반영하는데, 현재 쾌락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현재 숙명은 미래와 삶에 대한 운명론적이고 무력하고 절망적인 태도를 나타낸다(Cretu & Negovan-Zbăganu, 2013). 따라서 쾌락과 숙명의 현재 시간 표상에 미래에 대한 시간 표상이 내재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암묵연합검사에서 현재 쾌락에 대비되는 인내와 현재 숙명에 대비되는 노력을 적용하여 미래와

의 해리를 관찰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세 범주-속성의 해리에 대한 예측은 과거와 현재의 긍정/부정 속성의 차이와 현재와 미래의 쾌락/인내와 숙명/노력 속성의 차이이며, 이들의 연합적 차이가 시간관의 시간 범주의 표상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방 법

참가자 대구경북지역 K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듣는 대학생 중 연구의 목적에 동의한 102명이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실험재료 이 연구의 실험 참가자는 시간관 척도와 암묵연합검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였다. 시간관 척도는 Zimbardo와 Boyd(1999)에 의해 개발된 시간관 척도(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TPI)이며 오정아(2008)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ZTPI는 모두 56문항이며, 과거 부정 10문항, 과거 긍정 9문항, 현재 쾌락 15문항, 현재 숙명 9문항, 미래 13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였다. 시간관 문항에 대한 반응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여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정하게 하였었다. 이 연구에서의 시간관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과거 부정 .83, 과거 긍정 .78, 현재 쾌락 .69, 현재 숙명 .65, 미래 .74이었다. 반면에 암묵연합검사는 Greenwald, McGhee와 Schwartz(1998)가 개발한 암묵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적용하였다. 이 검사는 특정 대상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두 개의 목표 범주와 두 개의 속성 범주에 대한 연합 강도로 측정한다. 범주가 연합되는 반응시간과 정확성을 측정하여 대상에 대한 암묵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간관 척도에 근거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의 목표 범주로 구성하였고,

‘긍정/부정’, ‘쾌락/인내’, ‘숙명/노력’을 속성 범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인지심리학과 임상심리학 전공자 5명이 Zimbardo의 시간관 범주에 근거하여 그 범주에 적절한 국어 단어를 선정하였다. 단어 선정은 남기심(2005)의 국어 사용 빈도 조사를 이용하였다. 시간 범주 단어는 과거 단어 10개, 현재 단어 10개, 미래 단어 10개를 선정하였고, 속성 범주 단어는 긍정 단어 10개, 부정 단어 10개, 쾌락 단어 10개, 인내 단어 10개, 숙명 단어 10개, 노력 단어 10개를 각각 선정하였다. 암묵연합검사에 사용된 단어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실험절차 시간관 척도의 암묵연합검사는 5단계로 구성된 세 개의 블록(과거-현재, 현재-미래/쾌락-인내, 현재-미래/숙명-노력)으로 진행되었고 각 블록은 역균형화되었다(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과거-현재의 암묵연합검사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단계에서는 시간 명사(예; ‘어제’)가 제시되는데, 참가자는 제시된 단어를 과거 또는 현재의 시간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이 단계의 과제는 사각 창에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20개의 시간 명사를 상단의 시간 범주에 정확하게 할당하는 것이다. 2단계의 과제는 1단계와 모든 절차는 동일하지만 상단의 범주와 재료에서 차이가 있다. 이 단계는 상단 좌우에 각각 ‘긍정’과 ‘부정’의 속성 범주가 제시되며, 사각 창에 무선적으로 제시되는 20개의 단어를 긍정(예; ‘아름다운’) 또는 부정(예; ‘우울한’) 속성 범주에 할당하는 것이다. 1, 2 단계를 거치면서 참가자는 시간 명사와 시간 속성이 어떤 범주에 할당되는지를 학습하게 된다. 3단계는 1단계와 2단계를 종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이미 학습한 40개의 단어가 무선적으로 제시되며 각 단어에 대한 범

주를 판단하여 반응하는 단계이다. 다음의 4 단계는 2단계와 모든 절차가 일치하지만 단지 속성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 단계는 왼쪽 상단에 ‘부정’ 범주가 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긍정’ 범주가 제시된다. 5단계는 왼쪽 상단에는 ‘과거와 부정’ 범주가 제시되며, 오른쪽 상단에는 ‘현재와 긍정’ 범주가 제시된다. 3단계에서 사용된 40개의 검사 단어가 무선적으로 제시된다. 3단계와 5단계는 시간 범주와 속성 범주(긍정, 부정)가 교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참가자들은 왼쪽 배정 범주에는 ‘z’ 키를, 오른쪽 배정 범주에는 ‘/’ 키를 눌러야 하며, 각 반응시간이 기록된다. 반응키를 누른 후, 1000ms가 경과한 후, 다음 자극이 제시된다. 두 단계에서 얻어진 반응의 차이가 암묵연합검사의 점수가 된다. 그리고 시간 범주와 속성 범주의 반응시간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범주의 효과 크기인 d값을 계산한다 (Cohen, 1977). 이 연구에서는 한 참가자가 3개

의 암묵연합과제를 모두 경험하였다.

결 과

ZTPI의 하위척도 간 상관은 Zimbardo와 Boyd (1999)의 연구에서 제시한 상관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표 1 참조). 즉 과거-부정과 과거-긍정의 상관은 각각 -.29와 -.24이었으며 과거-긍정과 현재-쾌락은 각각 .23과 .19이었으며 현재-쾌락과 현재-숙명은 각각 .27과 .32이었으며 현재-쾌락과 미래는 각각 -.18과 -.29이었으며 현재-숙명과 미래는 각각 -.30과 -.26이었다. 그러나 과거-부정과 미래의 상관은 차이를 보였다. 선행 연구는 -.13이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상관이 .00이었다.

암묵연합검사의 정확반응률은 90%였고 오답 반응은 삭제한 후 개인별 반응시간 평균값을 구하였고, 삭제와 3,000ms 이상인 반응은 평균의 표준편차 2값으로 대체하였다. 시간적

표 1. Zimbardo 시간관 척도의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Zimbardo와 Boyd(1999)와 이 연구의 비교

	과거부정	과거긍정	현재쾌락	현재숙명	미래
과거부정	-	-.29**	.15	.45**	-.00
과거긍정	-.24***	-	.23*	-.11	.17
현재쾌락	.16**	.18**	-	.27*	-.18
현재숙명	.38***	-.09*	.32***	-	-.30**
미래	-.13**	.12**	-.29***	-.26***	-

* 표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왼쪽 하단의 상관은 Zimbardo와 Boyd(1999)의 연구에서 보고된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이며 오른쪽 상단의 상관은 이 연구의 한국판 시간관 척도에서 얻어진 상관계수(N=102)이다.

표 2. 시간관 변인에 따른 암묵연합검사의 조건 간 반응시간(ms), IAT 효과, 및 d값

	반응시간	IAT 효과	t	d
현재+긍정/과거+부정	651 (114)	270***	21.91	1.02
현재+부정/과거+긍정	919 (159)			
현재+쾌락/미래+인내	849 (173)	36*	2.57	0.10
현재+인내/미래+쾌락	876 (191)			
현재+숙명/미래+노력	886 (186)	72***	4.97	0.21
현재+노력/미래+숙명	812 (176)			

* 는 $p < .05$, ***는 $p < .001$, ()은 표준편차, IAT 효과는 M1-M2, $d = (M1-M2) / \text{통합 SD}$.

차원의 과거-현재 범주의 해리는 긍정과 부정 단어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표 2 참조). 그 결과, (현재+긍정/과거+부정) 조건(651ms)이 (현재+부정/과거+긍정) 조건(919ms)보다 반응 시간이 270ms 빨랐다($t(101)=21.91, d=1.02, p<.001$). 다음은 현재와 미래의 해리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쾌락에서는 (현재+쾌락/미래+인내) 조건(849ms)이 (현재+인내/미래+쾌락) 조건(876ms)보다 36ms 빨랐고($t(101)=2.57, d=.10, p<.05$), 숙명에서는 (현재+숙명/미래+노력)보다는 (현재+노력/미래+숙명)이 오히려 72ms 빨랐다($t(101) = 4.97, d=.21, p<.001$). 두 속성 모두 IAT 효과에서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두 속성 모두 d 값의 크기가 작았고, 숙명은 현재와 미래가 상반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ZTPI의 하위척도와 암묵연합검사의 d 값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상관은 낮았다. 즉 ZTPI의 하위척도와 d 의 상관은 -.10에서 .24 사이였다.

논 의

ZTPI의 하위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선행 연구(Zimbardo & Boyd, 1999)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과거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현재 쾌락과 현재 숙명 시간관이 높고, 과거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현재 숙명 시간관이 낮고, 현재 쾌락과 미래 지향 시간관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과거의 부정과 미래의 상관에서는 미국인이 -.13이고 한국인이 .00으로, 상관의 크기와 방향에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구는 과거가 부정적일수록 미래 지향적이기 어렵지만 이 연구는 과거 부정과 미래 지향은 상관이 없었다. 두 연구 모두 상관계수의 크기가 작아서 과거의 정서관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겠다. Bolotova와 Hachaturova(2013)에 따르면 미래 정향은 주로

적응적인 인지 전략을 선택하는 반면에 과거-부정이나 과거-긍정 정향은 인지 전략보다는 정서 전략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는 과거와 미래에 적용되는 심적 전략이 시간관 표상의 역동성에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주요 관심은 암묵연합과제의 결과이다. 시간관 차원의 과거-현재-미래의 평균적 해리가 세 개의 암묵연합과제를 적용하여 확인되었다. 과거-현재의 해리는 전통적인 절차를 적용하여 과거와 현재를 긍정과 부정의 속성으로 각각 연합시켰다. 그 결과, 과거-부정과 현재-긍정의 연합이 현재-부정과 과거-긍정의 연합에 비해서 270ms의 반응 차이를 보였다. 이는 두 범주가 정서적으로 해리되어 있다는 증거이며, Nosek (2007)의 과거-미래의 해리를 종합하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갈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우세하게 연합될 가능성이 시사된다.

시간관 이론에서 쾌락과 숙명은 속성의 정서성을 넘어서 정서와 인지의 복합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Bolotova & Hachaturova, 2013). 첫째, 현재-쾌락과 미래-인내의 연합은 현재-인내와 미래-쾌락의 연합보다 반응시간이 36ms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쾌락과 미래의 인내가 현재의 인내와 미래의 쾌락 보다는 연합이 강하다는 증거이며 현재와 미래가 두 속성으로 해리되었을 가능성을 보였지만 d 값은 .10으로 매우 작았다. 쾌락 속성을 현재-미래의 범주적 해리에 암묵적 수준에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한다. 둘째, 현재-미래의 해리가 숙명-노력의 속성으로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현재-숙명과 미래-노력의 연합보다는 현재-노력과 미래-숙명의 연합에서 반응시간이 72ms 더 빨랐고 d 값은 .21이었다. 미래의 숙명이 현재의 숙명보다 연합 강도가 더 강했다. 그 이유는 숙명의 의미가 대부분 현재의 과제를 수

행하지 못하기 보다는 미래에 대한 무력하고 절망적인 태도이며(Cretu & Negovan-Zbăganu, 2013), 미래의 목표와 보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예; Zimbardo & Boyd, 1999; 2008). 숙명 속성이 암묵적 수준에서는 현재보다 미래 범주에 표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다. 이 결과는 현재를 쾌락과 숙명으로 구분한 시간관 이론(예; Zimbardo & Boyd, 1999; 2008)에 대치되는 것이다. 시간 범주와 속성의 연합을 토대로 시간관 이론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간 범주를 긍정-부정의 속성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미래의 목표와 보상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미래 긍정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의 목표와 보상을 얻을 수 없고 운명론적 기대를 가지는 미래 부정으로 기존의 시간관 이론을 수정하고, 이러한 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이 연구는 과거-현재-미래의 차원을 정서적 속성을 적용하여 범주적 해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러나 모든 시간 차원과 정서, 인지, 행동의 속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지 못했다. 단지 이 연구의 결과와 Nosek (2007)의 연구를 종합하면 시간적 범주가 암묵적 수준에서도 범주적으로 표상될 가능성은 분명하다. 시간 범주와 정서적 평가의 연합적 관계는 과거에서 현재를 거치면서 긍정적 연합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사회적 표상이나 시간적 표상 모두 최적의 표상을 필요로 한다. 즉 범주 간의 균형적 표상이다. 사회적 표상의 균형은 개인-관계-집단의 긍정적인 연결 표상이며(Greenwald, et al., 2002), 시간관 이론은 과거-현재-미래의 긍정적인 연결의 인지 표상이라고 볼 수 있다(Zimbardo & Boyd, 1999; 2008). 사회적 표상은 자신, 관계, 집단이 긍정적 속성으로의 표상이 최적일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 표상도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긍정적 속성으로의 연합이 최적 표상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시간관 표상에서 과거는 부정이지만 현재는 긍정이며 미래는 더 긍정 예측으로 표상되는 시간 범주 간의 점진적인 인과나 대비적 관계가 최적의 표상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시간의 연속적 위계 관계와 좀 더 세부적인 시간 범주와 속성들의 역동적인 표상 체계에 관한 연구가 기대된다.

참고문헌

- 남기심 (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서울: 국립국어원.
- 오정아 (역) (2008). 타임 패러독스. 서울: 미디어월.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olotova, A. K., & Hachaturova, M. R. (2013). The role of time perspective in coping behavior. *Psychology in Russia: State of the Art*, 6, 120-131.
- Boniwell, I. (2009). Perspectives on time. In S. Lopez (E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nd Ed.) (pp. 295-3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tu, R. Z., & Negovan-Zbăganu, V. (2013). An exploratory approach of the structure of Zimbardo's time perspective concept. *Proce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8, 753-757.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nway, M. A. (2005). Memory and the self.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53, 594-628.
- Fortunato, V. J., & Furey, J. T. (2010). The theory of MindTim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inking perspective and time perspectiv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 436- 441.
- Greenwald, A. G., Banaji, M. R., Rudman, L. A., Farnham, S. D., Nosek, B. A., & Mellott, D. S. (2002). *A unified theory of implicit attitudes, stereotypes, self-esteem, and self-concept*. *Psychological Review*, 109, 3-2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Holman, E. A., & Zimbardo, P. G. (2009). The social language of time: The time perspective- social network connection.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1, 136-147.
- Kant, I. (1965).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N. Smith, Trans.). N.Y.: St. Martin'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890)
- Kruger, D. J., Reischl, T. M., & Zimmerman, M. A. (2008). Time perspective as a mechanism for functional developmental adaptation. *Journal of Social, Evolutionary and Cultural Psychology*, 2, 1-22.
- Lewin, K. (1943). Defining the "field at a given time". *Psychological Review*, 50, 292-310.
- Nosek, B. A. (2007). Implicit-explicit relation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6, 65-69.
- Sedikides, C., & Brewer, M. B. (Eds.) (2001). *Individual self, relational self, collective self*. Philadelphia: Psychology Press.
- Stolarski, M., Fieulaine, N., & van Beek, W. (2015). Time perspective theory: The Introduction. In M. Stolarski, N. Fieulaine, & W. van Beek (eds.), *Time perspective theory: Review, research and application: Essays in Honor of Philip G. Zimbardo* (pp. 1-13). Springer.
- Vygotsky, L. S. (1982). *Voprosy teorii i istorii psichologii {Problems of psychological theory and history}*. In *Sobranie sochineni {Collected works}* (Vol. 1, p. 108). Moscow: Pedagogics.
- Zimbardo, P. G., & Boyd, J. N. (1999). Putting time in perspective: A valid, reliable individual-differences metric.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 1271-1288.
- Zimbardo, P. G., & Boyd, J. N. (2008). *The time paradox*. New York: Free Press/ Simon & Schuster.
- Zimbardo, P. G., Sword, R., & Sword, R. (2012). *The time cure: Overcoming PTSD with the new psychology of time perspective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 Zwaan, R., & Radvansky, G. A. (1998). Situation models in language comprehension and memory. *Psychological Bulletin*, 123, 162-185.

1 차원고접수 : 2015. 06. 11
 수정원고접수 : 2015. 07. 21
 최종게재결정 : 2015. 07. 25

부록 1. 시간관 암묵연합검사에 사용된 단어

차원	범주	속성
시간	과거	어제, 지난주, 작년, 예전에, 그전에, 저번에, 옛날에, 옛적, 고대, 지난 해
	현재	오늘, 이번 주, 올해, 지금, 요즘, 금일, 이번에, 이 순간, 요새, 이제
	미래	내일, 다음주, 내년, 나중에, 그후에, 다음에, 앞으로, 훗날, 후대, 다음 해
정서	부정	무능, 치욕, 절망, 처벌, 저주, 망신, 전쟁, 열등, 복수, 증오
	긍정	성취, 안정, 영광, 희망, 자유, 칭찬, 축복, 평화, 은혜, 사랑
쾌락	쾌락	기쁨, 만족, 본능, 욕구, 유쾌, 안락, 향락, 충동, 유희, 즐거움
	인내	참을성, 기대, 꾸준, 포부, 계획, 예견, 성취, 연습, 전망, 끈기
숙명	숙명	운명, 팔자, 필연, 전생, 수용, 체념, 순응, 불운, 윤회, 천운
	노력	야망, 연습, 애쓰기, 성실, 절제, 열심히, 꾸준히, 도전, 의욕, 의지

〈Brief Report〉

Categorical Representation of Time Perspective in Implicit Association Test

Jae-Ho, Lee **Yun Kyeung, Choi** **Heung Pyo, Lee** **Hong Seock, Lee**
Keimyung University Daegu Cyber University Hallym University

Zimbardo and Boyd(1999) suggested the time perspective theory for explaining mental representation. This theory assumes that time is the primary dimension of mental represent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mplicit categorical representation of time perspective using implicit association test(the time perspective-IAT) sensitive to implicit processing.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time perspective of past, present and future could be major components of mental representation. The time perspective-IAT scores showed that the present were evaluated more positive than the past and the fatalism was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future than the present. But the effect size of the time perspective-IAT scores were small.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by using optimal balanced representation perspective.

Key words : time perspective, IAT, past, present, future, positive, negative, hedonism, fatalism